

주목! 이영화 '야연'



동양적 시각 중국판 '햄릿'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햄릿'을 동양적인 시각으로 옮기면 어떨까. '야연'(夜宴·감독 왕 사오강)은 이러한 물음을 스크린으로 옮긴 영화다.

혼돈의 시기인 5대10국 시대. 중국 황제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황제 사해 배후로 의심받는 동생 '리'(유거)가 왕위를 계승한다. 미망인이 된 황후 안(장쯔이)은 어린 시절 연인이었던 황태자 우란(대니얼 우)을 살리는 조건으로 리의 아내가 된다.

위험천만한 영화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힘은 강약을 요령 있게 조정하는 감독의 연출력과 '개이사의 추억'을 통해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장쯔이의 호연이다. 특히 내면의 감정을 농밀하게 표현하는 연기가 압권. '와호장룡' '영웅' '인연' 등에서 선보였던 노련한 액션연기도 여전하다.

'메트릭스' '와호장룡'의 무술감독을 맡았던 원화평도 중국 무협의 공식을 한단계 끌어올렸다.

웅장한 스케일에 비해 이야기 구조가 다소 약한 점은 중국 영화에서 계속해서 지적돼온 사항이다. '야연' 역시 그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너무나 화려한 영상미에 이야기가 억눌린 걸까.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차인표·신애라 부부 부산국제영화제 폐막 사회



배우 차인표·신애라 부부(사진)가 10월20일 치러질 제11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12~20일)의 폐막식 사회를 맡는다.

이들 부부가 함께 행사 진행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올해 차인표는 '한반도'에 출연했으며, 신애라는 '아이스케키'를 통해 스크린에 데뷔했다.

이에 앞서 영화제 개막식 사회는 '국민 배우' 안성기와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맡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영화제가 한달 남짓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초반부터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일반 상영작은 26일부터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piff.org), 티켓캐시 홈페이지(ticket.piff.org)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추석극장가 1,500만 관객을 잡아라

추석 명절은 영화계에도 '대목'이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추석 영화를 보는 분위기가 자리잡으면서 명절마다 영화관은 발디딜 틈이 없다. 그만큼 추석을 겨냥해 개봉하는 영화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추석에도 '타짜' '라디오 스타' '잘살아보세' 10여 편의 영화가 추석 시즌을 겨냥해 개봉한다. 개봉을 앞두고 있는 추석 영화들을 살펴본다.



올리고

웃기고

'가문의 부활'의 김원희

'범죄의 재구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최동훈 감독과 조승우, 김혜수, 백윤식, 유해진 등 화려한 출연진을 자랑하는 '타짜'의 흥행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낱고기는 타짜들의 세계를 화려하게 조명해 시사화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화투'라는 친숙한 소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2시간 16분에 달하는 긴 러닝타임과 18세 미만 관람불가 등급이 흥행의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금 연휴인 추석기간 동안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추석 '가문의 위기'로 재미를 톡톡히 봤던 '가문 시리즈'도 다시 극장가를 찾았다. 3편 격인 '가문의 부활'은 단순 무식함과 성적인 농담을 웃음의 코드로 잡고 있다. 말초적인 웃음을 재공하는 가문 시리즈는 이번에도 무난한 흥행이 점쳐진다.

'잘 살아보세'는 김정은-이범수 주연의 영화로 80년대 산아제한 운동을 소재로 했다.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와 코믹 연기라면 내로라하는 두 배우들의 찰떡 공합 연기가 돋보인다.

명절 영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우 '청룡'의 영화 'BB프로젝트'도 영화관들을 기다리고 있다. 청룡 특유의 시원시원하고 재치있는 액션과 코믹 연기가 웃음을 자아낸다. BB는 빌리언 달러(billion dollar)라는 뜻으로, 돈을 위해 감부의 아기를 유괴한 상습 도박꾼 풍평(청룡)과 난봉(구인목)이 엉겁결에 아기를 보호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면서 벌어지는 험프닝을 다루고 있다.

/곽선정기자 ks@kwangju.co.kr



'라디오 스타'



'귀미호 가족'



'타짜'



'BB프로젝트'

주말 극장가	
영화	상영극장
<b>가문의 부활</b> '가문 시리즈'가 돌아왔다. 가문의 위기의 '백호파'가 또 한번 코믹한 모습을 선보인다. 주인공들의 촌스러운 헤어스타일과 복고풍 의상도 웃음에 한 몫 거든다. 15세이상 관람가.	롯데(광주·천안), 메가박스(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천안), 하이,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힐리우드
<b>무도리</b> 할아버지 판 '마피도'로 흥미를 모으고 있는 작품. 노인들 10여명만이 살고 있는 침침산 중 무도리에 자살희망자들이 밀려오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죽음'이라는 목직환 주제를 유머러스하게 풀어냈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천안), 메가박스(무등극장,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CGV(상무·천안), 하이,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힐리우드
<b>야연</b> '햄릿'의 비극적인 운명을 동양적인 시각으로 옮겨왔다. '개이사의 추억'으로 세계적인 스타로 떠오른 장쯔이의 호연이 돋보인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천안), 메가박스(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천안), 하이,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힐리우드
<b>우리들의 행복한 시간</b> 공지영의 소설을 원작으로 죽음을 앞둔 남자(강동원)와 자살을 세 번 시도한 여자(이나영)가 만나 교감을 나누게 되는 과정을 진지하게 그려냈다. 15세 관람가.	롯데(광주·천안), 메가박스(무등, 밀리오레, 엔터,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하남), 하이, 목포 메가리안, 목포 CGV,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힐리우드
<b>두뇌 유희 프로젝트, 퍼즐</b> 짜릿한 반전을 즐길 수 있는 범죄 스릴러 영화. X라는 미지의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5명의 개성 강한 인물들의 스릴 넘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18세 관람가.	롯데(광주·천안), 메가박스(무등,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하남), 하이,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힐리우드
<b>엔애, 그 침울 수 없는 가벼움</b> 오래된 연애에 관한 지극히 근한 약속을 그려냈다. 장진영과 김승우가 험한 목적을 내뱉으며 몸싸움을 벌이는 오래된 연인으로 출연한다. 18세 관람가.	롯데(천안), 메가박스(무등, 밀리오레,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CGV(상무·하남), 하이, 순천 롯데, 순천 프리머스, 여수 힐리우드
<b>독방전설</b> 날렵한 몸매로 출몰하던 박근형이 18대 1의 '전설'로 돌아왔다. 전설을 꾸꾸는 청춘의 씩씩한 모습을 그렸다. 18세 관람가.	콜롬버스(상무·하남), 프리머스 제일, 하이, 여수 힐리우드
<b>유리쿠</b> 2006년 영화제 감독주간 초청작으로 '매종 드 허미코'로 우리 나라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꽃미남 오다기리 조가 주연을 맡았다. 15세 관람가.	광주극장
<b>호텔 르윈다</b> 르윈다관 '심들러 리스트'로 불리는 영화로 1994년 르윈다 내전 당시, 호텔에 모여든 1천 268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실존인물의 이야기를 그렸다. 12세 관람가.	광주극장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가스활명수같은 남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가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원도 가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가스활명수**큐

최수민 김동원